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5, 마태복음 2-3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5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어 마태복음 1장의 서문을 마쳤고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등장인물 중 일부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마리아, 요셉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 세트, 세 명의 캐릭터 또는 캐릭터 그룹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점성가인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고 기술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는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서기관과 귀족 신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썄, 동방 박사는 동부 및 초기 바빌로니아와 이 시대 페르시아의 현자들의 주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다신교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조로아스터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라는 용어는 다니엘의 그리스어 번역판에서 다니엘의 적들을 가리키는 말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동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Magoi, Magi라는 용어가 사악한 마술사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사물에 대해 알아내는 곳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표징으로 사물을 알아냅니다.

글쎄요, 특정 천체는 왕권을 상징하는 목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를 대표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치하면 유대에서 강력한 통치자가 탄생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본 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원전 4년 헤롯이 죽기 몇 년 전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1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기원전 6년 또는 심지어 7년경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역사상 이 한 사건을 위해 하나님은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문화에 무언가를 두시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들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점성술사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글쎄요, 점성술은 그 시대의 과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조차 점성술이 이방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단지 예측일 뿐입니다. 별은 실제로 미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혜성은 통치자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특히 혜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네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혜성을 보고했을 때 몇몇 귀족들을 죽이며 '아, 혜성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임종 직전에 긴 머리의 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 꼬리를 가진 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파르티아 황제의 죽음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르티아인들은 긴 머리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예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성술사들과 종종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성술의 이러한 가치 중 일부를 흡수하여 6세기 갈릴리에서 회당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바닥은 중앙에 태양신 헬리오스가 있는 황도대의 모자이크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랍비들이 승인한 것이 아니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신앙을 실천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1세기에도 이 시기에 요세푸스(Josephus)와 필로(Philo)는 성좌에 비추어 성막이나 성전의 다양한 것들을 묘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움 (Herodium)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실제로 헤로디움 궁전에 앉아 아이들을 학살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캐러밴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통과될 것입니다. 일단 유대에 이르면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대상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북쪽의 주요 도로에 도달하기 위해 동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북쪽 6마일 길을 택할 것입니다.

헤롯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거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멈춰서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우회하여 남쪽 길을 택하고 돌아오기 위해 로터리로 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의 그의 행동이 성격에 따른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헤롯 대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의 모든 잔학 행위를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로마가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 유대 파벌은 다른 유대 파벌에 맞서 로마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유대를 다스리는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당신 제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왔고 그들은 로마가 권력을 잡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헤롯 대왕이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의 지역 귀족인 산헤드린(원로원, 시의회 등과 같은 의회를 가리키는 좋은 그리스어 용어)이 산헤드린이 그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기존 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권력에 앉혔습니다. 현명한 정치적 통찰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의 말썽꾸러기들과 함께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놀리는 것 뿐인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예요. 그의 정치적 감각은 탁월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안토니우스와 친구였지만, 안토니우스의 여자친구인 클레오파트라를 적이었다.

보통은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는 Antony가 죽을 때까지 Antony와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이사르의 지지자들 중 일부인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알려진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통치자가 되자, 헤롯은 대신 그의 친구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나는 당신의 적과 친구였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와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충실한 친구인지 알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충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Caesar는 실제로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충성스러운 친구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헤롯은 유명한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 특히 카이사르를 기리는 신전을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특히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성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성전이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성전도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이 성전에 쏟아부었습니다. 고대 사마리아의 폐허에 있던 세 바스(Sebast) 에 그는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로마 세계 전역과 더 먼 동쪽의 파르티아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도 이 성전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식 중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 이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명의 학생을 둔 두 명의 바리새인 교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학생들에게 헤롯 성전에 있던 금독수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로마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이 검독수리를 쓰러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그의 많은 결혼 생활 중 일부에 있어서도 정치적이었습니다.

헤롯은 마카비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그를 검증할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암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군가가 그녀를 간음죄로 거짓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정치를 한 번만 무시하고 그녀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녀의 결백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궁전의 탑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히피쿠스(Hippicus), 페이살(Phasal), 마리암네(Mariamne)라는 세 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친구의 이름을 딴 사람, 죽은 사랑하는 형제의 이름을 딴 사람,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죽인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딴 사람.

헤롯도 경쟁을 싫어했습니다. 마리암네의 남동생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매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경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고고학에 따르면 깊이가 약 3피트, 깊이가 약 1미터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키가 매우 작았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칙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미친 듯이 질투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두 아들이 자신을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죽였으나 나중에 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액자에 넣어졌습니다. 나중에 다른 아들이 실제로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시점에서 헤롯이 임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게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헤롯의 아들 중 하나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헤롯에 대한 요점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자신의 평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은 신경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무료 사진이 무엇이든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자신의 평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애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자신이 죽는 날 애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잡아온 귀족 몇 명을

처형하겠다는 명령을 처제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실제로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 땅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에 관한 잠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통치자가 죽으면 기뻐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텍스트를 보면 이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텍스트 자체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 비추어 등장인물의 반전을 봅니다. 점성가의 한 형태로서 점성가에 대한 성경적 형벌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인 구약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린이를 처형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요구하자 그는 아기들을 죽여 어머니의 목에 매달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내쫓았습니다.

일부 사악한 통치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악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아기를 버리거나 때로는 아기를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유대 민족의 왕이 있습니다. 이방인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졌으나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성경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동방박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갔을 수도 있고, 별이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거나 별이 그들에게 말했다면 그것은 유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에 도착했지만 그 후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이 별을 어떻게 보든 별은 그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은 자신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상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당시의 성경 전문가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왕이 탄생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물론 나중에 추가되는 구절이지만 미가 5장 2절을 보면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대상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면 헤롯의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아마도 헤롯이 처음 왕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권력을 잡은 헤롯의 정치적 하수인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훈을 보면, 여기 동방 박사들이 가는데,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운 내용에 따라 행동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세대 후에 이 서기관들의 후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그분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사이의 경계는 때때로 얇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성가정이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 그림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남부 이집트에 있고 예수와 그의 가족은 북부

이집트, 삼각주 지역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큰 도시였으며 아마도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그리스 추종자들, 마케도니아 추종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이집트가 수세기 전에 명망 높은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집트 근처의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인들은 이집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실제로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의 1/4에서 1/3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4분의 1은 현지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은 '아니요, 우리가 유일한 시민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방금 우리 도시에 왔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2세기 초에 대량 학살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오랫동안 피난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한다면 요셉 시대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출애굽의 반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모세의 경우를 기억하라. 네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유대에서 예수의 생명을 구하던 사람들이 죽어 이집트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피난처가 되고,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 됩니다. 이집트의 예수에 관한 초기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박해받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은 예수의 이집트 체류를 마술과 연관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술사로서 행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약의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러 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모의 죄악을 3대와 4대까지 보응하시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천 대까지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 말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태복음 2장에는 핍박받는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이집트 기독교 전통도 있지만 이에 대한 최초의 출처는 마태복음입니다. 내러티브의 신학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신성한 옹호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가 꿈을 경고로 받았다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등을 포함하여 모세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백성의 유산을 동일시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난민으로 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으며 출애굽기의 초기 유대인 주석서인 메킬타 에서 이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지에서만 말씀하시거나, 물 근처의 성지, 물 근처의 깨끗한 곳 이라면 가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과 다른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난민이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자 신분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머리 둘 곳도 없는 도망자, 심지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것을 동일시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이것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아내는 실제로 18개월 동안 조국에서 전쟁 중에 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일을 이해하십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2장에 네 개의 지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이리저리 다니십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신성한 아기와 영웅들의 승리에 관한 고대 이야기를 여기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에 가장 가깝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한 서기관이 모세가 바로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꿈은 모세의 아버지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암시가 있습니다.

헤롯은 새로운 파라오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도망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15에서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모세가 도망하는 데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나 특히 평행선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분명해집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호세아의 평행선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호세아의 문맥에서 메시아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문맥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당시의 표준 헬라어 번역, 우리가 칠십인역이라고 부르는 당시의 일반적인 헬라어 번역본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태는 스스로 히브리어를 직접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이는 마태가 아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는 아마도 나머지 맥락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첫 번째 출애굽을 말한 후 호세아 11장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인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이집트에서부터 그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부르고, 몸을 굽히고, 사랑으로 내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그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앗수르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이 나옵니다. 그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네게 이 일을 할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가 진노하여 무너뜨리고 내 진노에 불을 붙인 이 성읍들과 같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고 내 동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부르리니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오는 새 같이, 앗수르 땅에서 비둘기 같이 떨며 올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정착시키리라. 그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은 재림 때 어떤 면에서 완성될 수 있지만 확실히 초림 때 그분은 그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튜를 바라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맥락에 맞습니다.

매튜는 일관되게 이 패턴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세 가지 명령을 인용하시고 그 명령을 이행하십니다. 라헬은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울었습니다.

라헬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성서 자체도 종종 이와 같은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 44장까지를 보면 그 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눈먼 사람은 내 종 외에는 누구인지 말씀하신다. 내가 보낸 사자는 귀머거리이다.

다시 이사야 49장 3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5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할 자입니다. 다시 이사야 53장에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지만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의 사명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안에 온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마태는 같은 종류의 연결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구약성서 자체에서 연결해 놓은 이사야서의 구절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대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마태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마도 첫 번째 기록일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왕족의 회계, 특히 예루살렘에 관한 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의 성격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일치하며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4~6마일 떨어진 위치에도 적합합니다. 헤로 디움은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4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거기에서도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이야기를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2.16과 2.17에서 불의를 비난합니다. 이 구절은 아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다섯 번이나 언급합니다.

이 아이와 그 엄마보다 더 무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독재자는 한 아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편집증적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 따온 표현을 사용하여 한탄합니다. 우리의 비극에서 우리는 역사상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는 중에도 그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승리할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자신의 장기적인 목적을 보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출애굽을 자신의 백성의 포로 생활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장 18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여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부르짖는 라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썄요, 모두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마태는 그의 목표 청중, 핵심 청중이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예레미야 35:19). 그래서 마태는 암묵적으로 Gezer HaShavah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셀 하샤바(Gezer HaShavah) 는 비슷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개의 텍스트를 가져와 함께 연결하는 유대인 해석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후대의 랍비들은 야곱이 라헬을 그곳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자신을 지나쳐 가던 유배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후기 랍비들의 말을 인용할 때, 나는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위로하시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여 2.15에서 그가 아들에 관해 방금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 안에 있는 언약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성경을 읽고 더 넓은 문맥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구절을 인용할 때 종종 암묵적으로 전체 문맥을 제안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이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큼 성경을 모르는 오늘날의 독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다음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사렛 인구에 따라 다양해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나사렛 주민이 5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은 나사렛의 많은 부분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보다 조금 더 멀리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어쨌든 일부 사람들은 주민이 약 500명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평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정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파괴된 후, 24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나사렛에 정착했는데, 그 이유는 나사렛이 깨끗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Pottery는 더 남쪽에서 온 많은 유대 이민자들이 언젠가 이곳 나사렛의 갈릴리에 정착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셉과 아마도 마리아의 가족들이 베들레헴 주변 지역의 더 남쪽에서 와서 여기에 정착하는 것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후기 기독교인들은 나사렛을 예수가 성장할 장소로 고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은, 아테네의 에베소라는 유명한 곳 출신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유대 민족에게는 그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의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갈릴리 밖에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사렛에 대해 들어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목공은 의심할 바 없이 나사렛에서 매우 가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어렸을 때 갈릴리의 두 주요 도시 중 하나였던 세포리스는 세금에 대한 로마인들에 대한 반란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는 즉시 세포리스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당신이 세포리스에서 4마일 떨어진 공동체에 산다면, 나사렛이나 그 주변의 다른 작은 마을에 산다면, 당신은 잠시 동안 목수나 석공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요셉과 예수는 둘 다 목수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에 정착한 2장 19절부터 23절의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예수의 나사렛 배경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종종 나사렛 예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꼭 폼하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글쎄, 그는 이 작은 마을 출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학의 수많은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환난으로부터의 휴식을 봅니다. 헤롯의 죽음은 세 번 언급됩니다.

헤롯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지만, 궁극적으로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망의 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없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새로운 모세나 구원자로 봅니다.

나는 앞에서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에 그 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 성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갈릴리에 정착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통치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켈라오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 아켈라오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역사가가 말했듯이, 아르켈라오스는 아버지의 모든 악덕을 가졌으나 그의 미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그는 매우 불친절하고 매우 비열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형편없는 행정가였으며 결국 6년에 갈리아의

비엔나로 추방당했다. 그러므로 유대 땅에 정착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마침내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나사렛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거주지가 50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불러일으키고, 성경적인 근거는 그것이 신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유대인 통역자들이 때때로 했던 것처럼 몇 가지 다른 텍스트를 함께 엮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글쎄요, 유대인 통역사들은 때때로 말장난도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암시를 혼합하고 말장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그가 어떤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삼손이 나실인이었던 사사기 13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실인이라 불려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히브리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네체르(netzer) 에 관한 이사야서의 장에서 가지(branch)는 가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유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체르는 가지를 의미하며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약속된 오실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해 두루마리 등에서 메시아적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튜는 아마도 정교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 정교해서 오늘날 학자들은 그가 하고 있던 정교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을 게을리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도 14대 세트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인의 게마트리아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숫자로 사용할 때 David를 히브리어 문자로 철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더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마태복음 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선지자의 경고(3장 1절부터 12절).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그리스 청중이나 적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이방인 독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요한을 헬라주의 도덕주의 철학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물로 그들의 몸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갖고 있는 생각, 즉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요한이 성지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과 접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당신이 나에게서 바울이나 다른 것에 관한 강좌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 철학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도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 철학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중 일부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선지자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게 하면 그들의 정치 권력을 영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운동은 선지자들에게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광야에도 나가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Josephus는 다른 몇 가지를 언급하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실제로 예수는 고대사 18:63과 64에서 요세푸스가 언급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는 요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존의 라이프스타일. 우리는 광야에서 그의 위치를 봅니다.

그것은 네 가지 복음서, 그의 옷차림, 그의 식단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의 위치입니다. 글썄, 이것이 역사적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요단강과 관련된 이 광야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성지 밖의 누군가는 황야를 요르단 강과 연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은 강 주변이 모두 비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르단의 경우에는 요르단 강 양쪽에 비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수록 그 양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리에 딱 맞고, 그 지역의 지형에 딱 맞습니다. 또한 광야는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습다.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었습다. 랍비들의 후기 이야기 중 하나에서 이 랍비 시므온 벤 요카이(Simeon ben Yochai)와 그의 아들이 가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하게 군중을 기록하고, 안전하게 군중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나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려고 애썼을까요? 왜 중요했나요? 글썄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다음 장에서 광야에 있을 예수님을 예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과 분리된 생활

방식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반로마 선지자를 포함한 급진적인 선지자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으며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광야에서 놀았습니다. 또한 콤란 공동체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제작한 사람들처럼 갱신 운동도 광야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위와 부패한 사회에서도 멀어질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했습니다.

사실 이사야 11장의 경우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곳 중 하나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거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확실히 세례 요한은 구원의 새로운 시대인 다가오는 약속된 새 출애굽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희생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John의 옷장과 John의 옷차림을 볼 때 보게 될 것과 일치합니다.

즉, 광야에서는 노트북을 연결할 장소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구를 쬐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1세기 유대 사람들에게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존의 옷장은 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희생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가 옷을 입는 방식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차림은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서 4장, 유대 전통이 더욱 발전한 부분, 집회서 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광야에 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존은 누구의 길을 준비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이미 여기에 있는 복음서 작가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사야가 여호와를 언급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마가가 인용한 말라기 3장을 인용하지 않고 엘리야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그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11장에서 그것을 인용했지만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도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John의 위치와 John의 옷장 외에도 John의 식단이 있습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습니다. 그는 벌레를 먹는다.

자, 당신이 세계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따라 이것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중부 고원 주에 머물고 있을 때 날아다니는 개미들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아, 이거 정말 맛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이 그들을 얻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개를 뽑아서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콩고의 일부 지역에서는 흰개미가 매우 맛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즉, 레위기 11장의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다. 메뚜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뚜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샤해 두루마리는 메뚜기를 음식으로 준비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메뚜기만 먹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로만 살아가는 것은 매우 특별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았던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매우 희생적인 생활 방식. John은 그들에게 야생 꿀을 뿌려서 약간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야생꿀을 얻었을까요? 글썄요, 불을 피우고 벌을 훈제한 다음 벌집을 부셔서 열고 꿀을 퍼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식단은 종종 광야 경건주의자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해야만 했던 여러 곳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종류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왕국을 위해 치러야 할 다양한 종류의 희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 불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악마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와서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람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소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 요한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예의 요점은 우리가 왕국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상인이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값진 값진 진주와 같으며(마태복음 13장), 또는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으니,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희생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희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거리에서 나의 믿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날까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무신론에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에서 신앙을 전했다는 이유로 때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르는 희생은 매우 다르지만, 우리 삶의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다른 일을 겪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므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별로 고통받지 않는 곳에 있다면, 기도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을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요한의 설교, 요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에오 (metanoeo)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는 그 뿌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어의 이 부분과 단어의 이 부분을 취함으로써 이것이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단어를 합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돌이켜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삶을 바꾸고 삶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보여주거나 회개의 행위, 이 경우에는 세례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요세푸스는 이에 대해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음, 고대에는 다양한 의식 침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를 쓴 사람들과 같은 일부 엄격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의식 침수를 실천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성별의 누구와도 하지 않고 알몸으로 연습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아마도 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르단 강에 공개적으로 나갔지만 물로 몸을 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40 스아 의 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침수 탱크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같은 다른 종류의 씻음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사용된 특별한 종류의 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이방인의 불순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요한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것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전파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르되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칭찬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를 독사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칭찬받는 문화를 별로 알지 못합니다. 일부 문화는 예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 그게 테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 뒷부분에서도 그 점을 되풀이하십니다. 작은 열매 없는 나무는 딸감 외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작았습니다.

어쩌면 지붕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좋은 지붕 들보조차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돌은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구약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설교할 때 셈족 언어로 된 말장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장난은 Aven과 Ben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돌과 태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이 돌에서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선지자들은 종종 말장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의 공덕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오실 심판과 심판에 관한 요한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왕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그것이 두 단계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왕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시는 메시지이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설교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장차 올 나라는 아모스서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너희에게 임하는 주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 의지를 갖게 하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공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로 향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가져오실 이 오실 분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또한 왕국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글썬요, 저는 여러분의 서클에서는 잘 모르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더 거룩해진다는 말, 즉 불이 우리에게서 더러움과 부정함을 태워버린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글썬, 불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다양한 것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정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테스트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불이 그의 뼈 속에 갇혀서 여호와와 말씀이 그 속에 있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전통은 종종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앞부분의 맥락으로 돌아가서 John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군중이 등장합니다.

매튜는 군중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크로부터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뱀이 불꽃을 피하는 것같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를 일렀느냐? 이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인가요? 내 말은, 그가 그들에게 '오, 당신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군요?'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가 너희가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을 때, 고대 지중해에서는 그것이 널리 믿어졌고, 여기에는 이방인 사이에도 포함되며, 새끼 독사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어미 몸에서 부화한다는 것이 널리 믿어졌다. 파충류는 알을 낳지만, 이것이 어미 몸 속에서 부화하고 어미의 자궁을 갉아먹으며 그 과정에서 어미를 죽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독사라고 모욕하는 것은 그들을 부모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John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요, 너희 부모 살인자들아.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당신은 부모님의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도덕적 수준에 있고 아마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은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있나요? 그는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게 행복한 불이었나요? 그것은 당신이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 불의 불이 당신의 뼈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심판의 불이다. 10절입니다.

12절, 11절 바로 다음 절인 12절은 그의 겨울 갈고리가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들이 수확 후에 밀을 모을 때 할 일은 밀을 공중에 던지고 바람이 가벼운 왕겨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겨는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밀과 왕겨를 분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밀은 헛간으로 모을 수 있었지만, 겨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지 태워버리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대상을 불에 태워질 겨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겨는 좋은 연료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타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빨리 타버렸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쪽정이가 금방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불이었나요?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의 장소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인 게헨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 파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영원한 멸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쪽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것에 관해 요한은 유대인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할 것 같은 가장 끔찍한 이미지를 취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 저주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최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10절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12절의 불은 심판의 불이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10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구절이 오나요? 그렇습니다. 11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문맥상, 이 문맥에서는 심판을 언급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두 회개합니까?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이 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밀과 쪽정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일부는 밀이 될 것이고 일부는 그가 말하는 사람들의 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는 그리스어로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무리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불을 당할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말장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겨를 골라내는 것은 바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약속된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은 구약성경 시편 51편과 이사야 63장에서 두 번이나 성령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영은 초기 유대교에서는 성령(Ruach HaKodesh) 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방식으로 불 세례를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야기한 게헨나에 대한 이러한 견해 중 일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악인이 즉시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즉시 멸절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것이 1년 정도의 일시적인 형벌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배교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 복음서에서 요한과 예수는 저주받은 자의 부활에 대한 당시의 가장 가혹한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장 자주 언급하는지 추측해 보세요. 안주에서 가장 흔들려야 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 우리는 정말 착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선포하는 왕국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안일함을 깨우시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장차 올 심판관의 권세에 대해서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에 비추어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엘 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4장, 이사야 61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9장.

하나님의 영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이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나는 그의 샌들을 다룰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에 랍비의 제자들은 발과 신을 다루는 일을 제외하고는 종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들의 선생을 위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을 잠그고 신을 나르는 일, 발을 씻는 일 등 노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의 샌들을 다룰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John은 이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이 분은 야훼 자신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도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5부 마태복음 2-3장입니다.